

내안육구에 발생한 피지선종 1예

서울대학교 및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이건국 · 서중석 * · 송계용 * · 지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김 윤 덕

서 론

피지선종(sebaceous adenoma)은 안면부나 두피부에 호발하고 피지선에서 기원하는 비교적 드문 양성종양으로 피지선 증식증(sebaceous hyperplasia)과 피지선 상피종(sebaceous epithelioma)의 중간 형태를 취한다¹⁾. 대개는 단일 병변이지만 다발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60대 이후에 호발한다²⁾. 특히 다발성 피지선종양이 내장의 다발성 양성 및 악성종양과 동반하는 경우를 Muir-Torre 증후군이라고 한다^{3,4)}. 피지선 종은 대개 피지선이 정상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안면부, 두피부 그리고 안검부에 호발한다²⁾. 형태학적으로 피지선종은 고도로 본화된 피지선 상피와 중간 단계의 분화가된 이행상피가 종양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²⁾.

저자들은 내안육구(medial caruncle)에서 발생된 피지선종 1예를 경험하고 발생장소가 특이할 뿐만 아니라 국내 문헌상 보고례가 없어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보고

환자는 78세된 여자로서 약 2년전 좌안에 발생한 이물감과 소양감 및 6개월전부터 인지되기 시작한 내안

육구의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용종성 비후를 보이는 종괴는 $0.6 \times 0.5\text{cm}$ 크기로 주위와 경계가 명확하고 회백색이며 과립상 표면을 갖고 있었으나 통통이나 이차성 염증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1). 신체검사 및 방사선 검사상 위장관계, 간담관계, 비뇨생식계통에 악성종양을 의심할 만한 병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두종의 임상진단하에 절제생검을 시행하였고 합병증 없이 잘 치유되었다.

병리조직학적소견상 진피에 주변과 경계가 명확하고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한 소엽상으로 고도로 분화된 피지선상피와 중간분화된 이행상피가 서로 비슷한 비율로 증식하고 있었고 미분화된 기저양세포도 일부 관찰되었다(Fig. 2, 3). 모낭구조 및 확장된 한선관은 종양내에서 관찰할 수 없었으나 각질상피가 중심에 각질화되어 모낭누두부를 형성하는 경향은 관찰되었다.

고 찰

피지선종은 피지선 분화를 보이는 신생물중 가장 흔한 종양이지만 피부부속기 종양중 발생빈도는 비교적 낮고 호발부위는 안면부, 두피부, 안검부 등이며 내안육구에 피지선종이 발생된 예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극히 드물다. 그러나 피지선 암종이 안검부, 내안육구, 안와 등에서 잘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내안육구에 피지선종의 발생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었다. 피지선종의 발생빈도 중 성비는 2.5:1로 남자에게 빈발하고 호발연령은 60대이나 피지선 모반에서 기원한 경

접수: 1990년 11월 27일, 계재승인: 1991년 2월 13일
주소: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우편번호 156-756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송계용



Fig. 1. Well circumscribed grayish white tumor nodule in medial caruncle of the left eye (0.5 × 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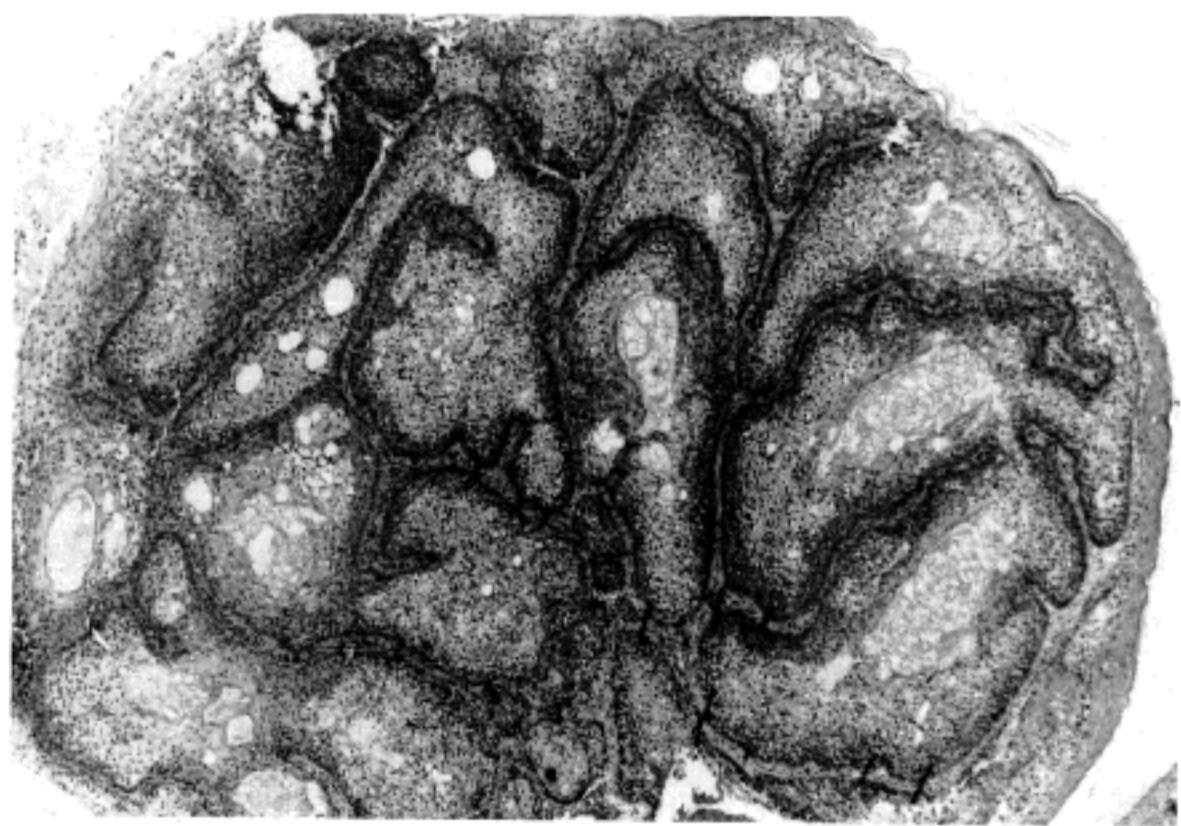


Fig. 2. Sebaceous adenoma with well circumscribed and lobular proliferation of sebaceous cells.

우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생된다^{2,4)}. 종야의 크기는 대부분 1.0cm 미만이며 궤양, 출혈 및 동통을 동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Mehregan과 Rahbari 등⁵⁾은 조직학적으로 전형적인 고형성, 낭형 및 각화극세포종형 등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본 증례는 전형적인 고형형에 속하였다.

피지선종은 경계가 좋고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미분화된 피지선이 엽상으로 구성되며 고도로 분화된 피지선세포는 정상피지선에서 관찰되는 당원질과 지방이

풍부한 다각형의 세포로서 주로 소엽구조 내부에 존재하고 크기가 작고 유기저세포양세포는 소엽 외부에 책상배열을 취하지만 비정형적인 유사분열이나 이형성세포는 관찰되지 않는다. 조직학적으로 감별해야 할 질환은 피지선 중식증과 피지선 상피종인데 전자는 확장된 선관과 발달된 모낭이 피지선 중심에 존재하며 후자는 엽상이 더욱 불규칙한 모양을 보이며 대부분 미분화된 기저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감별이 가능하다⁶⁾. 최근 피지선종은 내장의 악성종양과 병발한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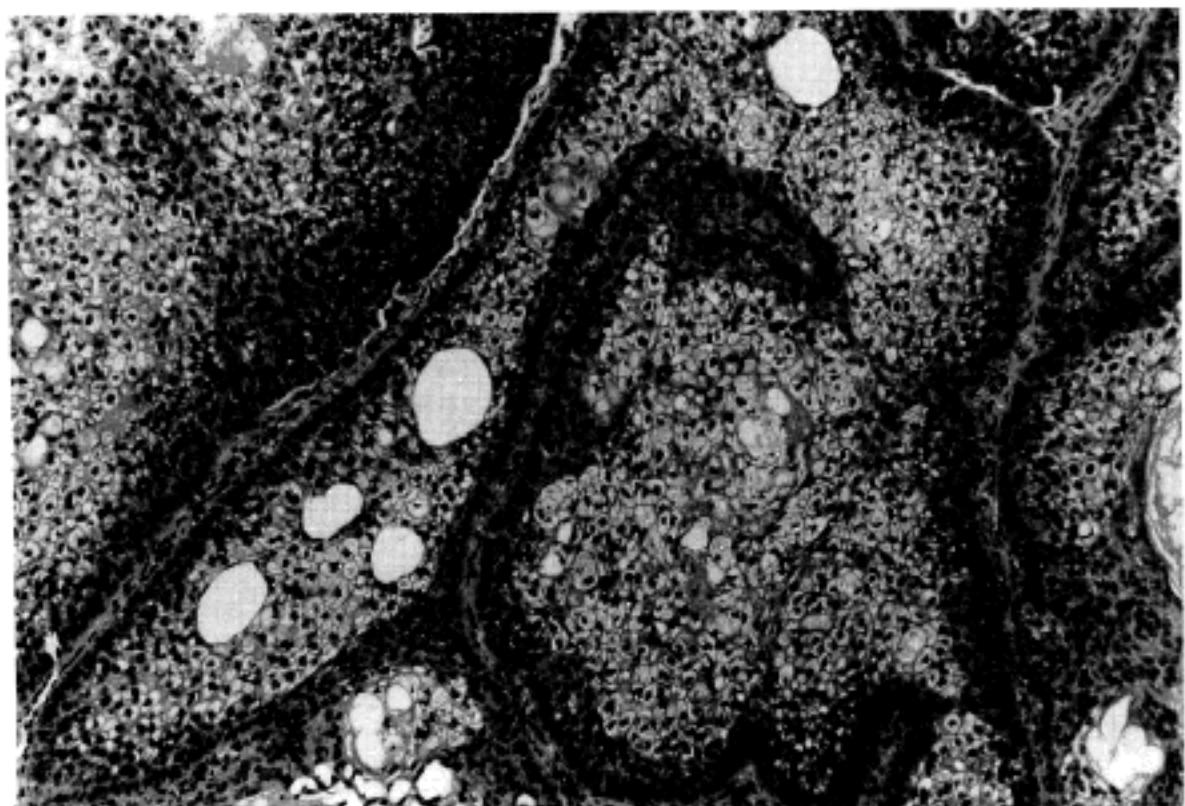


Fig. 3. Sebaceous adenoma with proliferation of mature and immature basaloid sebaceous cells.

에서 임상적 의의가 높아진 질환인데 1967년 Torre³ 가 다발성 피지선 계통의 종양 즉 피지선종, 피지선암종, 피지선분화를 보이는 기저세포암등과 다발성 내부암종 즉 십이지장의 바터팽대부 선암종 및 대장암종 등을 동시에 갖는 1예를 보고한 후 대장 및 직장선의 선암종과 용종, 그리고 자궁내막암종등 내장의 선암종과 피부에는 각화극세포종과 편평세포암 등이 다발성 피지선종양의 발생과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으며^{6~10} 이때 발생되는 피지선종은 40~50대의 두부, 경부, 사지등에 무증상의 다발성 결절로 나타날 뿐만아니라 뚜렷한 유전성 경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본 증례와 같이 단발성 피지선종양인 경우에는 유전성 경향과 내부장기의 악성종양과의 관련성에 관하여는 분명하지 않으며 본 증례에서도 상기 경향은 없었다⁴.

본 증례의 발생기전에 관하여는 피지선의 발달은 미약하나 내안육구에 정상적으로 피지선이 존재함을 생각할 때 이소성이라기 보다는 내안육구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피지선에서 기원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저자들은 78세된 여자의 내안육구에서 단일 병변으로 발생된 극히 드문 피지선종 1예를 경험하고 국내 첫 증례이며 발생부위가 흥미있어 보고한다.

참 고 문 헌

- 1) Lever WF, Schaumberg-Lever G: *Histopathology of the skin. 7th ed.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 1989, pp 597-598*
- 2) Rulon DB, Helwig EB: *Cutaneous sebaceous neoplasm. Cancer 33: 82-102, 1974*
- 3) Torre D: *Multiple sebaceous tumors. Arch Dermatol 98:549-551, 1968*
- 4) Jakobiec FA: *Sebaceous adenoma of the eyelid and visceral malignancy. Am J Ophthalmol 78:952-960, 1974*
- 5) Mehregan AJ, Rahbari H: *Benign epithelial tumors of the skin: benign sebaceous tumor. Cutis 19: 317-320, 1977*
- 6) Kupin LB, Morales A, Barlow M: *Torre's syndrome: Report of two cases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J Am Acad Dermatol 10:803-817, 1984*
- 7) Leonard DD, Deaton WR Jr: *Multiple sebaceous gland tumors and visceral carcinomas. Arch Dermatol 110: 917-920, 1974*
- 8) Sciallis GF, Winkelmann RK: *Multiple sebaceous adenomas and gastrointestinal carcinoma. Arch Dermatol 110: 913-916, 1974*
- 9) Housholder MS, Zeligman I: *Sebaceous neoplasms associated with visceral carcinomas. Arch Dermatol 116:61-64, 1980*
- 10) Schwartz RA, Flieger DN, Saied NK: *The Torre*

syndrome with gastrointestinal polyposis. Arch Dermatol 116:312-314, 1980

= Abstract =

Sebaceous Adenoma in Medial Caruncle of the Eye
— A case report —

Geon Kook Lee, M.D.,* Joong Seok Seo, M.D.*
Kye Yong Song, M.D.* and Je G. Chi, M.D.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Yoon Duk Kim, M.D.

Department of Ophthalmolog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baceous adneoma is a rare solitary or multiple

yellow, circumscribed neoplasm consisting of sharply demarcated, proliferating lobules of irregular size and shape that are composed of three cell types: basal cells, mature and transitional sebaceous cells.

We reported a case of extremely rare sebaceous adenoma arising in caruncle of the left eye in a 78-year-old female. A polypoid tumor nodule, measuring 0.6×0.5 cm., was noticed 6 months before resection. It was grayish white with granular surface. There is no evidence of associated visceral neoplasm. Histopathologically, it revealed a lobulated tumor, composed of equal amount of highly differentiated sebaceous and intermediate transitional epithelium with minor participation of basaloid cells. This tumor is thought to be the neoplasm of the sebaceous gland normally present in the caruncle of the eye rather than ectopic origin.

Key Words : Sebaceous adenoma, Caruncle of eye, Adenoma, Skin adnexa